퇴직전문가 해외파견 프로그램

개도국 기상 컨설턴트

기상자문관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대한민국의 기.상.기.술.을 세계와 나눕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아프리카,
같은 아시아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베트남, 몽골, 말레이시아...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기상기술로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려는 노력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상기술을 세계와 나누는 일,
이것이 기상선진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 기상청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열정을 갖고 도전해야 할 미래입니다.

개도국 기상 컨설턴트

기상자문관

c · o · n · t · e · n · t · s

04 현장스토리 ::
기상자문관, 세계를 가다

06 보람과 추억 :: 활동 수기
세계인의 공통언어, 기상_ **몽골편**
미지의 도전, 케냐에 가기까지_ **케냐편**
나와의 인연, 말레이시아_ **말레이시아편**

16 설렘과 기대 ::
기상자문관 파견을 앞두고

18 스페셜 ::
기상청 「국제협력전문가양성 특별과정」

20 알아두기 ::
기상청 개도국 지원사업 현황
NIPA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사업
자문관 파견 나라별 현황

〈기상자문관〉 발행일 2012년 7월 30일
발행 공급처 기상청 국제협력담당관실 (156-7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로방로 16길 61
TEL. 02) 836-2385 **FAX.** 02) 836-2386 www.kma.go.kr **E-mail** pbint@korea.kr

현장스토리

기상자문관, 세계를 가다

기상청은 2010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수행하는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개도국에 기상기술 및 관리 자문을 제공하여 수원국의 사회 ·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몽골, 케냐, 말레이시아에 자문관을 파견하여, 해당국의 기상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두 나라간 국제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상청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여다볼까요?

Success Story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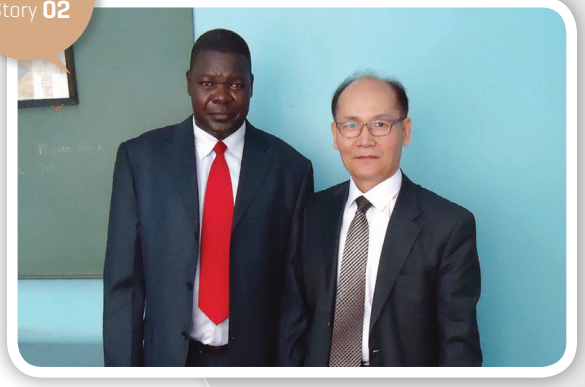
> Mongol

"칭기스칸국제공항 항공기상센터의 현대화 임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 몽골의 기상 현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느낄 수 있었습니다"

몽골기상청 소속 칭기스칸공항 항공기상센터 파견 (2010.12~2011.11)

홍성길 자문관

Success Story 02



> Kenya

"아프리카는 멀고 낯선 곳입니다. 그러나 기상은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케냐기상청에 파견되어 기상업무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케냐기상청 기상자문 파견 (2010.12~2011.11)

김문옥 자문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파견현황**
– '10년 18개국 38명 파견
– '11년 17개국 50명 파견

Success Story **03**

"베트남기상청 현대화 지원을 위해 우리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AWS에 대한 성능과 운영 상황을 소개하고 기술 자문을 수행할 수 있어서, 기상인으로서 자신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트남기상청 기상자문 파견
(2010.7~2012.7)
이영웅 자문관

Vietnam <

Success Story **04**

"공직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지원과 혜택을 국제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기상자문관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기상청 기상자문 파견
(2011.12~2012.11)
김병선 자문관

Malaysia <

기상자문관 활동수기_ **몽골 편**

세계인의 공통언어, 기상 氣象

2011년 몽골자문관 홍성길

1999년, 기상청 3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도 기상청 주변을 맴돌며 10년 넘게 기상을 향한 짝사랑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드디어 짝사랑을 이룰 시간이 왔다. 몽골기상청 자문관으로 해외근무를 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NIPA의 1차 모집 때는 갓 퇴직한 후배들에게 누가 될까 싶어 차마 지원을 하지 못했다. 2차 모집이 있던 2010년에 1차 모집에서 충원하지 못한 자리가 났고, 기상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는 환경도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었다.

1

면접관이 물었다. 외국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가? 혼자서 해외여행이 가능한가? 아마도 영어 실력을 가늠해 보기 위한 질문이었으리라. 능숙하지는 않아도 혼자서 외국에 나갈 수 있을 정도면 외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듯했다. 실제 현지에서 자문관으로 근무할 때는 내 영어실력도 문제였지만, 그나마 내 영어를 알아들을 현지 직원들이 매우 적다는 것이 더 문제였다. 어차피 대부분은 통역이 필요했다. 상대국에서 통역 지원이 안 되는 경우라도 NIPA가 지원하는 활동비로 통역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현지의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다.

1. 몽골 근무의 마지막 단계에 한민족의 시원인 시베리아 바이칼호수를 방문했다. 호수 가장자리 돌은 부서진 파도로 꽁꽁 얼어 미끄럽지만 호수는 얼지 않은 채 물결치고 있었다.

⊙ 몽골기상청의 요구사항과 기상업무 현황

2010년이 다 저물어가는 어느 늦은 저녁, 울란바타르(보통 UB로 통한다) 징기스칸국제공항에 몽골기상청 직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주택을 정하고 신변 정리를 하고 출근 준비를 마친 후 연말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몽골기상청 정원은 모두 1,800명, 지방기상청인 아이막기상센터가 21개소이다. 한 아이막의 넓이가 우리나라 전체 넓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토 전체 넓이에 비해 기상관서가 많이 부족했다.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노동법규를 꼬박꼬박 지켜 1주 5일 근무제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개인의 시간 활용은 매우 여유로운 반면, 기상청 입장에서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몽골도 국가예산이 열악해서 공무원의 인건비 조달조차 버거운 실정이었다.

몽골기상청의 자문관에 대한 특별 주문은 몽골 유일의 국제공항인 칭기스칸국제공항의 항공

2

3

기상 업무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아울러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국제인증(ISO9001)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 몽골기상청 현대화를 위한 준비

칭기스칸국제공항에 있는 항공기상센터(AMC)의 업무개선 계획을 만들기 위해 기상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새롭게 조직되었다. 기획, 예산과장까지 망라한 조직이었다. AMC를 드나들며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한국 항공기상청 직원들이 몽골로 현지출장을 오고 서울의 민간기상회사 W사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 '칭기스칸국제공항 기상업무개선 사전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는 영어, 몽골어 번역을 합쳐 발간하였고 이를 근거로 몽골기상청에서 몽골 정부를 거쳐 KOICA에 원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W사는 NIPA의 지원자금으로 몽골기상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몽골기상청의 현대화를 위한 사전조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NIPA 자문관은 파견국의 업무를 직접 거들기보다는 기관의 업무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일을 한다. 이 자문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산업기술이 파견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한국에 열광하는 몽골인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추억

몽골 국민들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다. 한국 제품과 시스템은 고급으로 통한다. 한국은 여행하고 싶은 곳이고 살고 싶은 나라이다. 몽골에는 3,5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살고 있고,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인도 3~4만 명이나 된다.

몽골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는데 열심이다. 한국에서 몇 년간 열심히 일하고 돌아가면 몽골에서 승용차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만한 승용차로 택시영업을 하면 직업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 몽골에서는 자동차만 있으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구입한 아파트를 세주면 수입이 생겨서 중산층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몽골 서민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가시적인 꿈일 지도 모른다.

한국인은 4계절을 거뜬하게 견딜 수 있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어서, 몽골의 극한 추위에도 UB 근교의 2천여 미터 산봉우리 정도는 한나절의 등산코스다. 눈 속에서 모닥불 피워 라면 끓이고 삼겹살 구워 보드카 한 잔하는 묘미, 그것도 잊을 수 없다.

기상은 세계인의 공통언어가 되었다. 국내외 어디든 우리 기상인이 할 일이 많다. 기상의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한 우물을 조금만 깊게 파보자. 세계가 보인다. 세계 도처의 일자리가 우리들을 부른다.

2. 칭기스칸국제공항에 있는 항공기상센터(AMC)에서 직원들과 항공기상업무 수행 절차에 관한 토의를 진행

3. UB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몽골 동부 도르노드 아이막기상센터를 방문하여 초이발산에서 안내 직원과 함께.
(돌에 새겨진 지도는 징기스칸이 점령한 땅.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기상자문관 활동수기_ **케냐 편**

미지의 도전, 케냐에 가기까지

2011년 케냐자문관 김 문 옥

지난해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실시한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사업에 참여해 기상자문관으로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왔다. 다녀온 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 글을 써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다음 사람을 위해 내가 경험한 것을 써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몇 번 시도하긴 했지만 쓴 것을 다시 읽어 보면 나조차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중도에 포기하곤 하였다. 더구나 기상전문가의 자격으로 다녀오긴 했으나 내가 케냐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었다. 지난 한해 뒤를 돌아보면, 나도 잘 모르면서 시작했고, 모르면서 활동했고, 또 모르는 와중에 마쳤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도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좀 쓰라'는 선의의 강한 압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앞으로 해외 진출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해외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 먼저 경험한 사람의 글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에 용기를 내게 된 것이다.

NIPA에서 퇴직전문가를 파견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그들의 발전 모델로 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여러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국내에서 활동하다 퇴직한 전문 인력을 개도국에 파견하게 되었다. 파견 사업에 기상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 기상청 담당 부서의 숨은 노력도 있었다. NIPA의 담당부서 직원들은 기상청이 타 기관보다 더 긍정적이고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했다.

⊙ 케냐에 가기까지

나의 파견 기간은 2010년 11월 29일에서 2011년 11월 28일로 꼭 1년간이었다. 처음에는

1

2

3

베트남에 1차 파견 지원을 했으나 안 되었다. 2차로 지원한 곳이 케냐였다. 케냐를 선택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무조건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었다. 내 생전에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다.

2차 파견자는 23명이었다. 지원자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으로 파견되고, 남미에 몇 분, 그리고 아프리카는 나 한 사람이었다. 파견 전에 NIPA에서 1주간 교육이 있었는데 이때 한 분이 내게 어떻게 아프리카 지역을 지원했느냐고 질문을 하셨다. 그때는 질문의 의미를 몰랐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프리카 지역이라면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등 풍토병이 극심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해 폭동과 테러가 빈발한데 그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느냐는 질문이었던 듯하다.

파견 교육을 받고 나서도 아내의 만류가 심하였다. 애들도 인터넷에서 케냐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서는 현지 사람들도 불안하여 열쇠를 이중 삼중으로 잠그고 살고 있고 테러도 자주 발생하는 나라라며 반대를 하였다. 나는 '그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나도 살 수 있다' 는 생각으로 아내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케냐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오신 목사님은 물론 외교통상부 아프리카 케냐 담당 서기관과 아내를 전화로 연결해 직접 통화하게 함으로써, 겨우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다.

출발하기 전부터 케냐에 도착한 이후까지 케냐 주재 한국대사관의 정종선 환경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 그는 사전 준비사항을 챙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로비 죠묘케냐타 국제공항에 마중을 나와 나의 입국절차를 모두 처리해 주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현지 교민이 내가 가지고 들어 온 짐을 보고는 이런 물건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느냐고 의아해 했다. 포장을 뜯지 않는 새 물건들은 모두 관세를 부과시킨다는 거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공항세관 직원이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을 정종선 환경관이 막느라 수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랐던 일이다.

⊙ 인천공항을 통과하면서

출발 준비를 할 때, 공항에서 어느 정도의 물건은 그냥 통과시켜 준다는 말을 들었기에 다소 안이한 마음으로 많은 물건을 가지고 공항에 갔었다. 그러나 짐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어서 크게 당황했다. 아프리카는 생활필수품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된장, 고추장을 비롯하여 이것저것 많은 것을 준비해갔던 것이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순간이 우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다. 나이로비는 케냐의 수도이면서 동아프리카의 중심지이고, 남아공 다음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지역이다. 나이로비가 국제도시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환경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케냐로 떠날 때의 경험을 교훈삼아 서울로 돌아올 때는 그 곳에서 사거나 받은 책, 선물 등은 모두 놔두고 꼭 규정에 맞추어 짐을 쌌다.

1. 노장에 설치된 자동강수량계

2. 케냐기상청 나이로비 노장

3. 케냐기상청 정문

KENYA
케냐

⊙ 케냐 나이로비에서의 첫 출근

4

11월 30일은 임시 숙소(guest house)에서 머물렀다. 12월 1일 한국대사관에 먼저 인사를 하고 케냐기상청에 들렀다. 집, 차량, 쌀 등 생필품을 구입하고 인터넷을 설치하고, 핸드폰을 사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알려준 덕분에 케냐에서의 시작은 아주 수월하고 활기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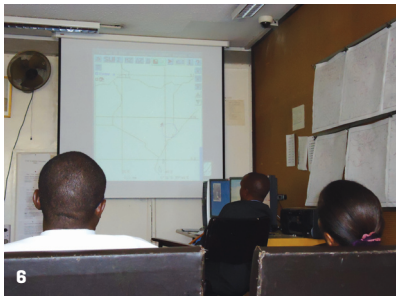
2010년 12월 6일 첫 출근을 했다. 케냐기상청 건물은 영국식으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관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것이 금방 눈에 들어 왔다. 이 모습을 보니 70년대 우리 기상청의 근무환경이 생각났다.

⊙ 케냐기상청의 이모저모

동아프리카의 중심 국가인 케냐 나이로비에는 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IGAD) 본부가 있다. 동아프리카 기후예측 능력 향상을 위하여 IGAD 내에 '기후예측응용센터(ICPAC)'도 케냐기상청과 함께 있다.

IGAD의 회원국은 Djibouti, Eritrea, Ethiopia, Kenya, Somalia, Sudan, Uganda, Burundi, Rwanda, Tanzania 등 동아프리카의 10개국이다. ICPAC은 WMO 산하 기관이며, 동아프리카 기상관측과 예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국 기상청 직원들을 교육하고, 이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케냐기상청은 4개국(총무국, 예보국, 교육훈련 연구국, 기상응용국)과 1개 국제협력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와 크게 다른 것은 국제협력부서가 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보면, 케냐 기상 업무의 많은 부분들이 해외



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기상청과 케냐기상청은 2010년 4월에 MoU를 체결하였다. 한국기상청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동아프리카 지역 기후체계(RCC) 구축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 인력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2012년 2월에는 한국 기상산업자가 진출하기도 했다.

⊙ 케냐기상청의 기상관측 일반 현황

종관기상관측소는 나이로비를 비롯해 33개소이며, 항공기상대로는 죠모케냐타 국제공항(나이로비) 등 4개소, 국내 공항관측소는 3개소이다. 고층관측은 마운틴 케냐와 나이로비에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 00Z는 관측하고 있으나 12Z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상층관측을 위한 재정 지원을 일본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한다.

농업기상관측소는 총 13개소로 그중 11개소는 케냐기상청의 종관기상관측소이고 나머지 2개소는 대학과 농업 관련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또 2,837소의 우량측정소에서 우량을 관측하고 있는데, 우량관측소의 자료는 우편으로 받아 기후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우량관측소의 우량계는 케냐기상청에서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 예보 업무

예보 브리핑은 우리와 비슷하였다. 08시 30분과 14시 30분, 하루 2회 정기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었다. 브리핑에 이용하는 시스템은 프랑스 기상청에서 지원한 SYNERGIE 시스템이다. 수치모델 자료 메인 컴퓨터는 독일 Deutschlandwetter에 있고, 케냐기상청은 계산된 자료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모델은 HRM(High Resolution Regional model : Resolution 14km)와 WRF(Weather Regional Forecasting Model)이었다. 예보 분석자료에 사용하는 일기도는 지상과 500hPa을 2회 수작업으로 작성하고, 단열선도는 Tephigram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밖에 예상일기도 및 강수예측은 영상으로 받아 예보자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즉 예보 시스템은 독일에서, 위성과 관측 시스템은 프랑스에서, 자료 관리는 영국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프로토콜이 달라 상호 자료교환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IT기술로 이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로비는 적도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의 열

4. Out of Africa에 나오는 카렌수녀원 농장

5. 가리샤 기상대의 관측노장에 설치되어 있는 AWS. 측기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 안됨

6. 정기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7. 타나강

8. 케냐기상청에서 제작한 우량관측소용 우량계

9. KOICA 사업을 통해 정수되어 나오는 물

적 상승에 의해서 밤에 주로 비가 오고 낮에는 맑은 날씨이나 가끔 오후에 기층의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씨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인들이 일기예보에 대해 그리 높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가뭄과 한발로 가축과 농작물이 크게 영향을 받고 사람 또한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장기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케냐는 일 년 중 두 번에 걸쳐 우기가 된다. 한번은 봄철 우기로 3월에서 5월이며, 다른 한번은 9월에서 10월 중에 있는 가을철 우기이다. 봄철 우기 예보와 가을철 우기 예보 발표 시에는 언론사는 물론 정부 관료까지 참석하여 질문을 받고 대답하며, 케냐기상청장(무카바나)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

⊙ 케냐기상청 직원들과의 관계

케냐기상청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다. 그러면서도 업무에 대해 물어보면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우선은 나의 영어 표현이 정확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설사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해도 종종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담당자를 소개해주지도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잦았던 것은 언어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그네들과 완전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 케냐에서의 출장과 여행

1년 동안 탄자니아 아루샤 출장을 비롯해 가리샤, 나쿠루, 몸바샤, 마운틴 케냐, 야생동물 지역의 롯지를 여행하였다.

가리샤 지방은 케냐 동부에 위치하고 소말리아 국경지역과 접하고 있다. 이곳에는 타나 강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는데 물은 온통 붉은 흙탕물이다. 이곳은 넓은 평야지대이긴 하지만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 UN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 강물을 이용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KOICA에서도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정수장 담당자는 다른 나라의 정수 방식은 약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예산이 소요되지만, 한국의 방식은 그저 끌어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훨씬 좋다고 칭찬을 했다.

10

11

> 나는 영어 단어 중 'Struggle'이라는 단어를 좋아 한다. '저항'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반항'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린아이가 일어서기 위해서노력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10. 케냐 시내버스 모습

11. 케냐기상청의 우량관측소용 우량계 제작현장

⊙ 그 밖의 생활

나는 주로 정장을 하거나 위의 사진과 같은 복장으로 생활하였다. 케냐로 출발할 때는 반바지와 반팔 셔츠를 준비해 갔는데, 내 기억으로는 반팔 셔츠는 일 년 동안 갈리샤 지방과 몸바샤 지방을 여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입은 기억이 없다. 위 사진은 Out of Africa에 나오는 카렌지역으로 수녀원 농장이 있었다.

나이로비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도시 중심을 제외하고는 숲 속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든다. 집들이 숲속에 있어 밤에는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처음 케냐에 가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무조건 가보자 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사람들의 얼굴을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이 사람이 어제 내가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했다. 3~4개월이 지난 후에야 구별이 가능했다. 그때 내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부끄럽고 웃음도 난다.

케냐의 모습은 60년대 우리 사회와 비슷했다. 60년대 전까지 우리나라가 해외 원조를 받았던 것처럼 현재 케냐 정부와 케냐기상청도 많은 원조를 받고 있다. 퇴직전문가 공공분야 파견 사업은 기술지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이다. 민 · 관 협력체가 구성되어 한국의 기상사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현지에 맞는 적정기술이 필요하다. 케냐기상청은 한국기상청의 발전된 자동화시스템, 슈퍼컴퓨터 운영체계 및 빠른 자료교환 체계가 도입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케냐의 열악한 통신 인프라로는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운영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케냐 상황에 맞는 적정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문관 파견은 더 많아질 것이다. 기상 분야도 더 넓어질 것이다. 기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많이 파견되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되어 우리의 국가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야 한다. 지원하는데 제일 장애가 되는 문제는 언어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다소 못하는 사람이나 고국의 언어가 아니면 모두 타국의 언어일 뿐이다. 그러므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문가 파견 사업은 이제 시작되었다. 많은 기상인들이 힘을 내어 도전했으면 한다.

1

기상자문관 활동수기_ **말레이시아 편**

나와의 인연, 말레이시아

2012년 말레이시아 자문관 김 병 선

기상청에 입사한 후 한국이 아직도 세계기상기구나 일본 국제협력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외 출장으로 참석했던 첫 국제 워크숍은 WMO의 경비 지원으로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여러 번 해외연수와 국제회의 참석 시 WMO와 일본 JICA의 지원을 받았다. 퇴직전문가 해외파견에 대한 공고문을 보면서 공무원 재직 중에 받았던 지원과 혜택을 국제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내게 지원서를 접수하게 만들었다.

내가 WMO의 경비 지원으로 처음 참석한 국제학술회의는 1988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겨울 몬순 워크숍'이었다. 그러고 보니 말레이시아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은 곳이다. 그 당시 서울올림픽에 대한 기상지원 업무를 발표했던 것과 한국의 빠른 성장, 그리고 적극적인 한국인에 대해 말레이시아인들이 큰 호감을 보였던 기억이 뚜렷하다. 당시 일정에는 없었으나 우리가 별도로 요구하여 말레이시아 기상국 옛 청사를 방문했었는데, 23년이 지나서 다시 가보니 무척 감회가 컸다. 그땐 말레이시아의 기상 수준이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우리를 기상선진국으로 대우하니 대한민국의 발전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말레이시아 기상국장과의 첫 만남에서 예전에도 말레이시아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무척 발전된 나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니, 그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겸손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2011년 말레이시아도 WMO의 EC국가로 선출되었으니 앞으로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가 아닌가 싶다. 첫 방문 시 색다르게 느꼈던 점은 예보 업무에서 항공이 주요 업무로 다루어지

2

3

고, 종관 업무는 장기 강수전망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열대의 날씨 변화가 온대지역과는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기후변화와 잦은 기상이변, 동남아 연무현상 발생과 쯔나미 피해로 인해 예전보다 업무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들은 공무원이 일반인에 비해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 군의 세력이 매우 강한데도 불구하고 군기상 지원을 민간에서 모두 수행하며 레이더 운영도 다른 기관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등이다. 국가마다 특성이 있겠으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한 번쯤 심각하게 검토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흐렸다가 맑았다가 비가 오는 날씨에 대해 언제 비가 오는지 개는지 일일이 따져보려는 생각이 거의 없고 그냥 하늘의 일로 치부하는 분위기인 듯 했다. 물론 시간이나 지역적으로 정확하게 날씨를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렵기도 하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차량이 정체되니 기사양반이 한다는 소리가 "그저께 비, 어제 비, 오늘도 비, 쏟아지는 비, 비, 비" 라고 하며 거의 체념하는 투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도로 위에서 위험한 순간에 처하면서 내가 느낀 건, 이러한 기상현상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이제 현대과학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현재 수신하는 강수 레이더영상을 확대하여 제공한다면, 많은 사람들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인터넷으로도 기상국에서 제공하는 기본 영상만 제공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기상정보 서비스도 다양하지 못하고 소수 기관이나 특수한 사용자에게만 정보가 맞추어져 있다. 예산 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알게 되었다.

농업 업무로만 본다면 특수 농업서비스로는 한국보다 앞선 면이 있다. 매월 인쇄매체를 통해 특수작물에 대한 성장예보를 제공하고 있고, 월간 강수량 예측정보도 제공한다. 그 정확도는 80%가 넘는 것으로 자체 분석을 하고 있다. 1개월을 넘는 장기전망은 하지 않으나 몬순에 대한 예측정보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기상업무가 증가하면서 많은 응용기상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에 대비하도록 조언했다. 업무체계, 장비 관리, 교육체계 등에서 아직도 영국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자체 경비로 실시하는 고위 공무원 교육조차 영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이 많이 있지만 영국에는 비교적 호감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의 수가 많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다소 의아했던 점은 학력 배경에 따른 직급의 차이가 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매우 느리지만 하나하나 기초를 다지면서 발전해 가는 모습이 역동적인 활동에 익숙해진 우리로서는 매우 인상적으로 보였다.

1. 북쪽에 위치한 Chuping 농업기상 관측소 방문

2. Kuala Pilah 신설 관측소 방문

3. 말레이시아 주경계

설렘과 기대

기상자문관 파견을 앞두고

우즈베키스탄 자문관 김 재 호

NIPA를 통해 파견되는 퇴직전문가 모집에 합격하고, 나는 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 표현해봤다. I'm a Korea senior expert to provide Uzhydromet with advice on polices for modernization of Uzhydromet services.

01 Uzbekistan

우즈벡기상청 정책자문관이 되기 위해서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건강검진, 영문이력서 및 서류제출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와 주재국의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 상대국 외무부, 해당기관 그리고 그 역순으로 승낙서가 와야 최종 절차가 끝나게 된다. 이제 그 과정의 막바지인 6월이 지나고 보니 시간은 참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초급 러시아어도 공부하고, 파워포인트 자료도 준비하고... 할 일이 너무 많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기상기술원 양성소를 거쳐 기상청에 들어 온 것이 1971년도이고 2011년도에 정년퇴직 했으니, 근 40여 년간 기상업무 현장에 있었다. 기상청이 내 인생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즐거울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종합해보면 행복 가득한 삶이었다. 행복의 기준은 자기 마음속에 있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마음이 제일 예쁜 아내를 만나고, 아들 둘을 낳아 때맞춰 여의고, 손자가 생기고, 대학원까지 못 다한 공부도 하고, 스위트홈을 꾸렸으니, 이 모든 것이 기상청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현직에 있을 때도 늘 마음으로 새겨 오던 터였다. 나 스스로 품은 기상청의 은혜와 감사함을 담아 이제 그 마지막 열정을 우즈벡기상청에 나누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KMA의 분야별 현재 상황을 잘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역할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동행하는 동료라도 있으면 힘이 될 텐데 혼자라는 생각을 하니 걱정이 떠나질 않는다. 아내마저도 이 핑계 저 핑계거리가 생기는 걸 보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하지 않았든가. 잘 마치고 돌아와 아내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소박한 여생을 꿈꾼다.

베트남 자문관 양 해 본

기상청은 내 인생에 정말 많은 것을 주었다. 나 자신도 기상 업무를 천직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기상업무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현직에서 좀 더 충실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내가 알고 있는 기상지식과 정보화 매체를 활용하여 제2의 인생을 산다는 기분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02
Vietnam

나는 우선 퇴직 기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친목을 다지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포털사이트에 기상전문인협회 카페를 개설하였다. 기상전문인협회에서 연구사업도 하고 Kisti 전문연구위원으로 참여하여 과학관 해설사로서 전시물에 대한 설명과 어린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도 하였다. 전직 과기부 출신들의 모임인 과우회의 과우봉사단에 참여하여 과학특강, 과학관 해설, 과학행사 부스체험 해설 등도 하고,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초 · 중 ·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기본교육도 강의하면서 바쁘게 활동하였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기상이 매우 필요한 정보가 되면서 퇴직 기상인들의 활동 범위도 많이 늘어났다. 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서에서 자문관을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 수원국에서 지원국이 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급성장한 우리나라 기상 업무의 과정과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나라도 많아졌다. 이러한 시기에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모집하는 개도국파견 퇴직전문가(Korea Senior Experts)에 지원하게 되었다.

막상 지원하고 나니, 이제 국내에서의 모든 활동을 접고 베트남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로 걱정이 앞선다. 베트남기상청의 발전을 위하여 당면 문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자문관의 역할일 텐데 그러한 업무가 내게는 벅찬 일이 아닐까 해서이다. 아직도 수작업에 의지하고 있는 관측 업무의 자동화라든지, 천리안 위성의 수신장치 설치, 기후자료 DB화, 온라인교육 지원 등 베트남기상청의 현대화를 위한 정책자문과 우리 기상청의 ODA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일단은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볼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대해 신뢰하고 친근감과 유대감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영세한 기상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기상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도 자문관의 역할이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언어의 장벽이다. 베트남어는 물론이고 영어마저도 약하여 걱정이 많이 되지만, 현지에 한국어를 하는 베트남인을 통역으로 활용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외국어를 익혀간다면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이래저래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기상청 「**국제협력전문가양성 특별과정**」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우수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기상은 특수한 분야입니다. 이론지식에 못지않은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또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에는 많은 기상전문가가 있습니다. 30년 이상 기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지식과 노하우가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정부의 자원외교 강화정책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기상기술력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국가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상분야 퇴직 전문 인력의 해외파견 사업 참여를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국제협력전문가양성 특별과정'을 소개합니다.

대 상

기상청 퇴직예정자(1~2년) 및 공로연수자
※ 퇴직기상인, 예비역 공군 · 해군 기상분야 관계자 등은 청강 가능

기간 장소 인원

3주(연 1회) / 기상청 / 10명 내외

교육 내용

- **Module 1.** 기상관측시스템 운영 및 관리
- **Module 2.** 수치예보, 위험기상 조기감지 및 예보
- **Module 3.** 기후모델링 및 농업기상
- **Module 4.** 개도국 기상기술 지원 정책
- **Module 5.** 국제개발협력의 이해와 실천전략
- **Module 6.** 국제전문가 역량 향상

기상청은 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심을 높였으며, 기상에 대한 전문지식 뿐 아니라 다문화 이해, 국제매너, 영어회화 스킬 향상 등 국제전문가로서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참가자의 해외파견 사업 참여의지를 높이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교육생 단체사진

2. 조석준 기상청장 특강

3. 교육 참여 모습

4. 체력단련

교육 운영 체계

Action Plan 수립

- 개도국에 대한 기상지식기술전수와 자문을 위한 개인별 활동 계획서 수립 및 공유

전문기상지식 함양 교육

- 기상관측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수치예보 및 위험기상 조기감지
- 기후모델링 및 농업기상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

- 개도국 기상기술 지원 정책
- 국제개발협력 이해와 실천 전략

국제전문가 역량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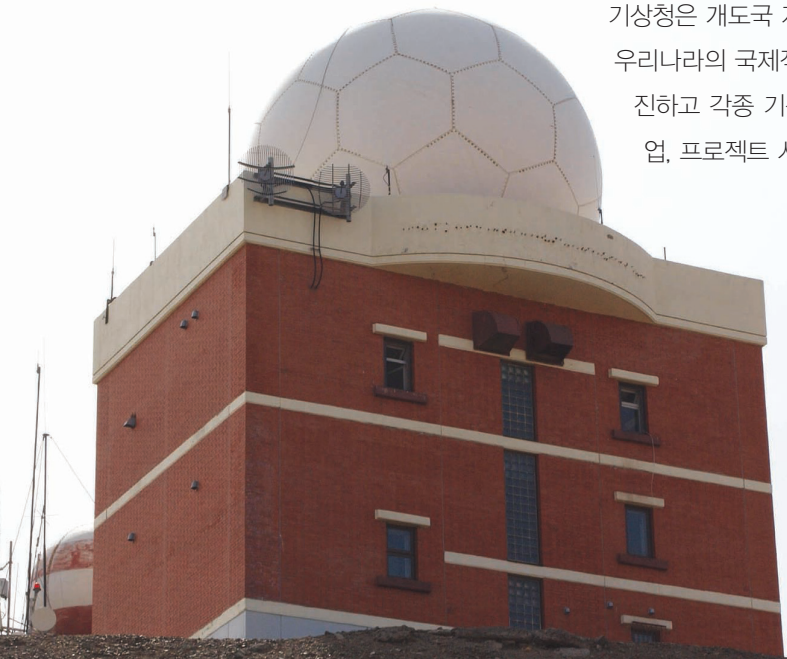
- 영어 소통능력 강화
- 국제매너 습득
- 컨설팅 기법

기상청 개도국 지원사업 현황

기상청은 국제협력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각국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상청은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세계 각 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도국 기상기술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해외로부터 기상기술을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한 것은 1998년부터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외국인 기상예보관 연수과정'을 시작한 이후로 개도국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제15차 WMO 총회(2007.6)에서 집행이사로 선출되면서 우리나라가 기상선진국으로 인정받으며 본격적으로 개도국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상청은 개도국 지원 사업을 통해 선진 기상기술과 경험을 해외에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기상업무 협력을 증진하고 각종 기상정보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초청 연수사업, 프로젝트 사업,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청 연수사업

기상청은 1998년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을 시작으로 연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아프리카 기상재해 대응능력 배양 과정, 천리안 위성자료 분석 훈련과정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기상업무 향상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ICT 과정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기상 분야 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까지 233

1

2

명의 외국인 예보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둘째, 천리안 위성자료 분석 훈련과정은 COMS 기상탑재체 운영원리와 계획, 다양한 기상산출요소, 사용자용 위성수신시스템, 위성영상을 이용한 기상현상의 분석과 예보활용 등에 관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도국의 기상위성 업무 전문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7번째의 기상위성 보유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량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2009년부터 실시된 아프리카 기상재해 대응능력 배양과정은 정부의 아프리카 협력 파트너십 강화 정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상, 물, 기후와 관련해 발생하는 재해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필리핀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010~2012)

2. 아프리카 기상재해 대응능력배양 과정(2011.4)

또한 기상청은 자체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에 개도국을 대상으로 레이더 운영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레이더는 위험기상 조기관측에 중요한 기상장비로, 개도국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레이더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가 지원과 레이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인프라 구축 지식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

기상청은 선진 기상기술력과 전문가 교류 · 교육을 포함한 프로젝트형 사업을 추진하여 단순한 기기 공여가 아닌 개도국 기상청의 자체적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KOICA와 연계한 프로젝트형 사업을 4개 추진하였고, 향후 지속으로 프로젝트형 사업의 수를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첫째, 「스리랑카 위성자료 수신시스템 구축사업」은 KOICA로부터 총 200만 달러를 지원받아 2010-12(2년간) 사업을 진행하여 올 2012년 4월 5일 스리랑카에서 공여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스리랑카에 천리안 기상자료 수신분석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보 인프라와 기상 감시기능

3

3. 스리랑카 위성 수신시스템 공여 (2012.4)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리랑카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되어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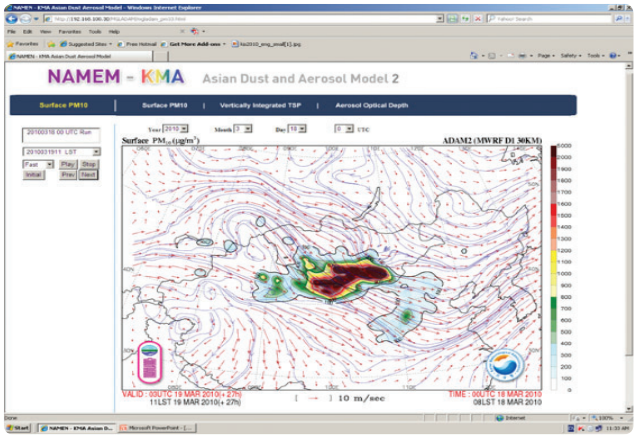
둘째, 「필리핀 재해방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필리핀 위험기상 대응 사업」이 KOICA로부터 총 300만 달러를 지원받아 2010–12(2년간) 사업을 진행 ·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필리핀 매트로 마닐라 지역을 흐르는 파시그–마리키나 강 유역을 따라 자동기상관측장비와 강우량계, 수위관측계 등을 설치해 안정적인 관측자료 수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필리핀 지역의 홍수 예 · 경보 역량을 강화하고 자체 기상재해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몽골기상청 기후자료복원 및 자료관리 현대화 사업」은 총 130만 달러를 지원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몽골기상청의 기후 보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리 및 보존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자료의 이미지화, 기후자료 보존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축, 전문가 교류 및 훈련 등의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상청의 역량을 크게 높였으며 다른 개도국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WMO–KOCA 공동 동아프리카 RCC[2] 구축 지원사업」은 총 60만 달러를 지원하여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상청은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동아프리카 기후예측 응용센터의 RCC 지정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동아프리카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능력과 기후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베트남 기상재해 대응사업」은 총 5만 달러를 지원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기상청의 발전된 운영시스템과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4



5

6

향후 계획

2020년까지 녹색 ODA 비중을 30% 확대한다는 국가적 목표 아래, 기상청도 개도국 기후·기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KOICA, ASEAN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연수사업 및 프로젝트형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례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천리안 수신 활용시스템에 대한 개도국의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KOICA와 협력으로 이 사업의 수원국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며, 필리핀과 피지, 라오스 등에 COMS 위성 수신시스템을 보급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의 발전 경험은 개도국 기상청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와 대한민국 기상영토 확대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상청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도국 지원에 힘쓸 계획입니다.

7

4. 베트남기상청에 TAPS-2(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 이전 구축 완료(2012.2)

5. 몽골 황사 및 에어로졸 모델 구축(2010)

6. 케냐 PC 클러스터 구축(2012.2)

7. 몽골 황사감시 기상탑 구축(2008)

2) Regional Climate Center, RCC, 지역기후센터

inside 01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프로그램

NIPA[1],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사업이란?

1)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지식경제부내 산재된 IT산업진흥 기능 통합을 위해 공공기관 선진화 2차 계획에 따라 '09.8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 정의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사업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퇴직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우리의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 ·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풍부한 경험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개발 사업을 발굴할 민간 · 공공기관 출신의 퇴직전문가(Senior Experts)를 2010년부터 매년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개국에 총 88명이 파견되었으며, 2012년 4월 현재 50명이 베트남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Summary :: 중요정보

Senior Experts 란?

- 민간 · 공공 부문 퇴직자 중 관련 기술과 경영에 대한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개도국 봉사에 대한 열의와 애정을 가진 분
- 산업기술,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무역투자, 지역발전 분야의 기술을 전수해 개도국 경제 · 사회 개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를 원하는 분

inside 02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프로그램

퇴직전문가(Senior Experts) 지원자격 및 모집절차는?

⊙ 지원 자격

Q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개도국 봉사정신이 투철한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적 소양을 가진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50세 이상으로, 공공부문(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등)에서 재직 후 퇴직하였거나 파견일 이전에 퇴직 예정인 자

– 민간부문(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기업 등)에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지고 퇴사하였거나 해외 파견일 이전에 퇴사 예정인 자

Q 언어 구사 능력에 제한이 있나요?

A 파견 중 임무 수행을 위해 협력 대상국 언어 혹은 공용어(대부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Q 그 밖에 특별히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나요?

A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으며 파견기간 동안 업무 수행과 해외 생활이 가능해야 하고, 또한 기타 파견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모집 절차

Q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 그리고 3차 최종심사가 있습니다.

과 정	평가 내용
1차 (서류)	– 기본요건 등 심사
2차 (면접)	– **전문평가** : 해당 분야 전문성 평가 – **일반평가** : 기본소양 평가 및 언어능력 평가 – **인성검사**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3차 (제출서류 확인, 건강검진, 파견 동의)	– 2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출서류 확인, 건강검진, 신용조회 및 수원국 파견 동의를 거쳐 최종 파견여부를 결정

⊙ 기타 문의사항

Q 경비는 지원되나요?

A 현지 생활비(주거비 포함), 활동비, 항공료, 재해보험료 등 연간 70~80백만 원 정도가 지원되며 사무실, 인터넷 등 근무 제공 시설은 현지 사정에 따르게 됩니다.

Q 보험은 가입되나요?

A 파견전문가를 피보험자로 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긴급사태에 대비한 연락체계, 긴급소산 및 대피계획을 유지합니다. 보험은 상해사항(보상한도액 3억 원), 질병사항(보상한도액 2억 원)을 보장합니다.

Q 파견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산업 핵심기술 및 구축 노하우 등을 보유하여 수출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Q 기타 지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본 사업은 개도국의 파견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개도국 현지 사정에 따라 파견 일정이 지연되거나 혹은 파견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 최종 파견대상자로 확정된 후, 개인의 변심에 의하여 파견을 포기하는 경우 국가 이미지 저하 및 외교적 마찰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의사결정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파견기관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사항 및 근무 제공시설 등은 각기 상이하므로, 파견기관의 직무기술서(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접수 등 퇴직전문가 선발 일정은 NIPA 홈페이지 (www.nipa.kr)를 참조

진행과정

자문관 파견 나라별 현황 ①

Kenya [케냐]

• 일 반	위치	아프리카 동부 해안 (소말리아와 탄자니아 사이의 인도양 연안 위치)
	면적	569천 km^2 (한반도의 2.7배)
	기후	열대성
	인구	4,100만명 (2011)
	수도	나이로비 (330만명)
	민족	Kikuyu (22%), Luhya (14%), Luo (13%), Kalenjin (12%) 등 40여개 부족
	언어	영어 (공용어), Kiswahili어 (공용어) 등 40여개 부족어
	종교	기독교 (78%), 회교 (10%), 토속신앙 (10%)
	대한민국 수교	1964.2.7
• 정 치	독립일	1963.12.12 (영국)
	정치체계	공화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Eimilio Mwai Kibaki 대통령
	의회	단원제, 224석
	주요정당	오렌지민주운동당 (ODM), 케냐아프리카국민연합 (KANU), 국가연합당 (PNU)
	국제기구가입	UN, WMO, FAO, IAEA, AfDB, IBRD, WTO, AU 등
• 경 제	화폐단위	Kenya Shiling (KSh)
	회계연도	7.1~6.30
	국내총생산	GDP 309억 달러 (2010), 1인당 GDP 1,648달러
	산업구조	서비스업 62%, 농림수산업 22%, 제조업15% (2010)
	주요수출품	홍차, 원예생산물, 커피, 석유제품, 어류, 시멘트 (2010)
	주요수입품	기계류, 운송장비,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 (2010)
	주요부존자원	소다, 형석, 커피, 차, 소금
	경제적 강점	경공업 발달, 세계적 관광명소 (Safari)
	경제적 약점	부존자원 빈약, 외채 과중, 정정 불안

⊙ 케냐기상청 (Kenya Meteorological Department, KMD)

케냐기상청은 환경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소속으로 1929년 영국정부하에 처음 세워졌으며, 1977년 케냐정부의 Department가 되었음. 예산은 연간 1,800만 달러이며 696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 36개의 지상관측소 및 농업기상관측소 등을 통해 기상예보, 농업기상, 산림기상, 서인도양 해양예보, 항공기상 등 서비스를 제공함.

• 케냐기상청

• 케냐 현지 모습

• 케냐 재래시장

자문관 파견 나라별 현황 ②

Vietnam [베트남]

● 일 반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
	면적	331천 km^2 (한반도의 1.5배)
	기후	아열대성 (북부), 열대성 (남부)
	인구	9,050만명 (2011)
	수도	하노이 (270만명)
	민족	베트남인 (86%), 기타 소수민족
	언어	베트남어
	종교	불교, 가톨릭
	대한민국 수교	1992.12.22
● 정 치	독립일	1945.9.2 (프랑스)
	정치체계	사회주의공화제
	국가원수	Nguyen Minh Triet 주석
	의회	단원제 (493석)
	주요정당	베트남공산당 (실질적 일당체제)
	국제기구가입	UN, IMF, WTO, APEC, IFC, ADB, ASEAN, WMO 등
● 경 제	화폐단위	Dong (D)
	회계연도	1.1~12.31
	산업구조	(2010) 제조업 41.1%, 서비스업 38.3%, 농업 20.6%
	주요수출품	(2010) 의류, 신발, 수산물, 원유, 전자제품
	주요수입품	(2010) 기계류 및 장비, 석유제품, 철강제품
	주요부존자원	석탄, 석유, 철광석
	경제적 강점	정치 · 사회적 안정,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경제적 약점	열악한 사회 인프라, 불균형적인 발전

● 베트남기상청 (National Hydro-Meteorological Service of Vietnam, NHMS)

베트남기상청은 1976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8월부터 자원환경부(MONRE)[3] 소속이 되었고, 직원수는 약 3천 명에 달함. 174개의 기상관측소와 232개의 수문관측소 등을 통해 공공 예보, 수문예보, 해양기상예보, 중기예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특히 태풍과 같은 위험기상 발생시 3시간 예보도 수행함

• 자원환경부

• 베트남기상청

• 베트남 남부

• 하롱베이

3) MONRE: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업무는 크게 7가지 분야(수자원, 수문기상, 토지자원, 지질 및 광물, 해양, 환경, 측량)로 나뉨.

자문관 파견 나라별 현황 ③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 일 반	위치	중앙아시아
	면적	447.4천 km^2 (한반도의 2배)
	기후	대륙성 사막
	인구	2,810만명 (2011)
	수도	Tashkent (220만명)
	민족	우즈베키스탄인 (80%), 러시아인 (5.5%) 타지크인 (5%)
	언어	우즈베키스탄어 (공용어), 러시아어
	종교	회교 (수니파), 동방정교회
	대한민국 수교	1992.1.29
● 정 치	독립일	1991.9.1 (구소연방)
	정치체계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Islom Karimov 대통령
	의회	양원제 (상원 100석, 하원 150석)
	주요정당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LDP), 인민민주당 (PDP)
	국제기구가입	UN, CIS, WMO, IMF, WB, EBRD, ADB
● 경 제	화폐단위	Uzbekistni Soum (UZS)
	회계연도	1.1~12.31
	산업구조	(2010) 서비스업 46.4%, 제조업 32.3%, 농업 21.2%
	주요수출품	(2009) 금, 면화, 에너지, 광물비료, 금속, 직물
	주요수입품	(2010) 기계 설비, 식료품, 화학제품, 금속
	주요부존자원	천연가스, 석유, 석탄, 금, 우라늄, 은, 동
	경제적 강점	천연가스, 금 등 천연자원 개발잠재력 양호
	경제적 약점	시장경제체제 전환 미흡, 1차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

● 우즈벡수문기상청

(Centre of Hydrometeorological Service at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UZHYDROMET)

정부 내각(Cabinet of Ministers)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음.
13개의 관측 구역에서 관측된 기상요소를 바탕으로 "위험기상", "농업기상", "수문기상", "기후정(장기예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현재 WMO의 RA(II) 의장국으로서,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the Climate Change), UNDP(UN Development Program), UNEP(UN Environment Program) 등 다양한 국제 기구에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음

• 우즈벡기상청

• 독립기념광장

• 독립기념광장 모자상

자문관 파견 나라별 현황 ④

Mongol [몽 골]

● 일 반	위치	아시아 중북부, 내륙
	면적	1,564천 km^2 (한반도의 7배)
	기후	대륙성
	인구	313만명 (2011)
	수도	Ulaanbaatar (102만명)
	민족	몽골족 (94.9%), 카자흐족 (5%)
	언어	몽골어
	종교	라마교 (50%), 회교 (4%)
● 정 치	독립일	1921.7.11 (중국으로부터 독립)
	정치체계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성격이 강함)
	국가원수	Tsakhia Elbegdorj 대통령
	의회	State Great Khurai (단원제, 76석)
	주요정당	몽골인민혁명당 (MPRP), 민주당 (DP)
	국제기구가입	UN, IMF, IBRD, ILO, FAO, WHO, WTO, WMO 등
● 경 제	화폐단위	Tugrik (Tug)
	회계연도	1.1～12.31
	산업구조	(2010) 서비스업 54%, 제조업 31%, 농업 15%
	주요수출품	(2010) 동, 석탄, 캐시미어, 의류
	주요수입품	(2010) 석유제품, 기계류, 전기기기, 식료품
	주요부존자원	석유, 석탄, 동, 몰리브덴, 동, 금
	경제적 강점	광물자원 풍부
	경제적 약점	사회간접자본 미비, 내수시장 협소, 물류수송망 열악

● 몽골기상청 (National Agency for Meteorology and Environment Monitoring of Mongolia, NAMEM)

몽골 정부 산하기관으로 1996년도에 설립되었고, 직원 수는 1,790여 명임.
공식 명칭은 국립기상수문환경감시청(NAMEM, National Agency for Meteorology and Environment Monitoring)이며, 117개의 지상기상대, 7개의 고층기상대, 1개의 레이더 기상대, 3개의 낙농기상대 등을 통해 기상예보, 항공기상, 기상조절, 수문기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몽골기상청

• 몽골 전통 가옥

•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전경

자문관 파견 나라별 현황 ⑤

Malaysia [말레이시아]

● 일 반	위치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면적	330천 km^2 (한반도의 1.5배)
	기후	고온다습한 열대기후
	인구	2,825만명 (2010)
	수도	쿠알라룸푸르 (160만명)
	민족	말레이계 (60%), 중국계 (25%), 인도계 (7%)
	언어	말레이어 (공용어), 영어
	종교	이슬람교 (국교), 불교, 힌두교 등
● 정 치	독립일	1957.8.31 (말레이시아 연방 독립)
	정치체계	선임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압둘할림 국왕 (2011.12 취임)
	의회	양원제
	국제기구가입	UN, IMF, IBRD, ILO, FAO, WHO, WTO, WMO 등
● 경 제	화폐단위	Ringgit (RM), 1$=2.96RM
	회계연도	1.1~12.31
	산업구조	GDP : 2,378억불 (1인당 GDP: 8,417불)
	주요수출품	(2010) 컴퓨터, 반도체, 선반, 철강판, 자동차
	주요수입품	(2010) LNG, 원유, 반도체 부품, 목재류
	주요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천연고무, 주석
	경제적 강점	부존자원 풍부
	경제적 약점	종족간, 지역간 심한 소득격차

● 말레이시아기상청

(Malaysian Meteorological Department for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MMD)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 산하기관으로 1958년 설립되었으며, 직원 수는 1,300여 명임.
140개 AWS, 41개의 기후관측소, 166개의 강우관측소, 10개의 레이더 관측소 등을 통해 매시간 관측자료를 전송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진, 해양·항공 기상예보 등을 수행하는데, 특히 공공 기상예·특보는 8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짐

• 말레이시아기상국

• 페트로나스 쌍둥이 건물

• 말레이시아 이슬람사원 전경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프로그램

개도국 기상 컨설턴트

기상자문관

"우리의 지원으로 개도국 기상업무 현대화!
기상청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기상영토 확장!"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156-7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Tel**. 02-836-2385 **Fax**. 02-836-2386
www.kma.go.kr **E-mail**. pbint@korea.kr